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6년 11월 11일(월) 제678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김주관 박재우 편집장 고병권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06 FAX 961-4183 (웅진)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산리 신 89

본교 최우수 국책대학으로 선정

정부, 5년간 32억씩 160억 지원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95년부터 추진되는 온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국책대학)에 본교가 최우수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3면)

이번에 따라 5년간 32억씩 총 160억원의 지원금이 통상·국제화사업과 지역전략 기 양성을 목표로 38년 서울에 설립된 지역화 전문대학원과 융합의 국제학종합연구센터에 사용되게 된다.

국책대학은 본교를 비롯해 서울대·연세대·

고대·이대가 최우수 5개 대학으로 선정됐고 우수대학으로는 경희대·중앙대·서강대·한양대 등 4개대학이 선정돼 매년 1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원은 운영여건 및 실적 △추진계획의 실행기능과 대체화율·운영의지 △재정계획 등을 주 평가대상으로 지난 9월 전국 46개 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간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9개 대학원에게 선정됐다.

국책대학은 본교를 비롯해 서울대·연세대·

장관 16일(수) 본교를 방문한 7명의 국책대학 실무자는 선형대학과 관련해 "다양한 지역의 언어를 연구·교류하는 국내유일의 교육기관"이라며 "대학원과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이론과 실제에서 연결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안병만 총장은 "본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끊임없는 참여로 학교발전을

이동훈 기자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지난 9일(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3만명 이상의 노동자·학생이 참여해 노동의 법 칠판 등을 외치며 노동자 단결의 강을 펼쳤다. (관련기사 8면)

용인 총학선거, 김형삼·김홍철 단독출마

서울총학, 27·28일 선거 예정

오는 20일(수)·21일(목) 저녁 7시 용인캠퍼스 제 18대 총학생회장·부 학생회장 선거에 김경삼(동구·한기리 4)·김홍철(자연·물리 3)과 단독 출마했다.

지난 4일(월) 후보등록 마감일에 777명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보들은 '전원의 시대' 참여의 대안, 참여와 단결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과 지난 7일(목) 자연 대강당에서 선거운동본부(선본) 발족식을 거두었다.

지난 6일(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김경삼·김홍철조는 오는 12일(화) 오후 6시 학생회관 앞에서 1차 유세를 선보일 예정이다.

예정된다. 인큰협의회 주최하에 진행되는 정견토론회는 오는 14일(목) 오후 5시 후생관 2층 교직원식당에서 열린다.

또한 종암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8일(금) 오후 6시 기숙사에서 2차 유세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각 대학 학생회장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공연 박종태(제어계측·2)
△인문대 송윤철(철학·2)
△기호 2호·장비호(서화·노어 2)
△총연 학생회장·정·합성회(서화·서반아이 3)
△부·백신우(동구·풀린드어 2)
△생활 재근수(서화·불이 3)
△서울구어·송윤철(철학·2)
△서양학·김경삼(이래리아 3)
△동양학·김태준(미언어 3)
△경상대 김대성(무역·4)
△동구어·성태화(무역·3)
△자연대 강상규(화학·3)

3조기 학생 회장은 핫진 투드림'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경선을 치른다.

또한 서울캠퍼스 31대 총학생회 선거는 오는 27일(수)·28(목)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13일(수)까지 이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선거유예는 20일(수)·25(일) 오후 1시에 각각 진행된다.

한편, 각 대학 학생회 선거는 법과대학·정책대학원은 20일(수)·21일(목), 동양대학은 21일(목)·22(금)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곽근영 기자

한총련 구속자 배려석군 출소

강석현 2년, 최진선 7년 선고

지난주에 진행된 한총련 통일부 관련 구속자 판결에서 본교 배현식(동대·정남통신 2)군이 징역 1년 6개월, 김영유에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월) 출소했다. 이와 함께 경기 5년, 자작경지 5년을 받은 강석현(서화·러시아어 4)군은 5일(화) 열린 선고판례에서 2년형을 인정받고 같은 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고무한양회로 구속된 최진선(인문·사학 4)군은 5일(화) 진행된 구형공판에서 징역 7년, 자작경지 7년을 선고받았고 이군의 선고판례는 오는 19일(화) 오후 10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곽근영 기자

지면 안내

국책대 기획

삼계인은 나

클린턴 재단

국민의 대안

어떻게 비

사회과학

반향

사회과학

시사

인권영화

나

파방에 모여

을 봤다. 단

그렇다면 단디

번'

'노동법 개정

특별기획

노동법 개정

부로 넘어가면

교육개발

그

성

이와관련

박성동 총학생회장 구

출을 위한 후원회는 다음달 초순

제관에 회복에 경정한 죄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

박윤정 기자

최우수 국책대학으로 선정

우리 외대가 최우수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외대 중 흥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21세기 세계화의 주역으로서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힘과 지혜를 다할 때입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해외통신 -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미 핵외교에 대한 고찰과 전망

미 정책 변화에 따라 올고 웃는 한반도

미국, 대북핵외교 강은 양면 작전 펼칠 듯

2차전 이후 국제정치구조로서 지속되어 오던 냉전은 해체되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 긴장은 분단과 한국침략에 막힌 민족적, 국제적 갈등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과 관련된 민족적 갈등구조는 남북간의 대결과 분단에 비롯된 것이다. 국제적 갈등구조는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온 미·소련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네온의 폭식이 한반도의 긴장을 통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은 북한의 혼란성과 군사도발 가능성이 대한 미국의 필요로 하는 서방과의 새로운 주제이다. 북한의 '핵무기'라는 친정의 새로운 주제는 한반도 내외의 새로운 환경속에서도 평화와 협력의 주제로 일도록 되었다. 즉, 92년 이후의 북한-미국간의 핵외교는 한반도 갈등구조의 새로운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갈등구조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돌아보면 지난 5월(한진기)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은 진영과 힘으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은 북·미간의 핵외교와 관련된 (미국) 국내적, 국제적 역할을 살펴보자 한다.

미, 동북아 현실에 탄력적인 대응 유지

클린턴-고어 진영은 4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전 여론조사의 예상대로 여유있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는

클린턴 행정부가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국제화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내부의 국가기구 안락에서 정치, 사회세력과의 대외적 요구가 입각되고 걸리거나 정리되는 과정에 의해 수립되어온다. 즉,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핵정책은 이와 관련된 국내적, 국제적 맥락의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그간 미국정부의 대북핵정책은 국내의 온건파(Doves)와 강경파(Hawks)라는 두 가지 사회세력의 접근방식 사이의 틈을 만들고자 노력할 수 있다. 온건파는 국부의 태도로 북한 핵문제를 정치외교적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정치적인 포장체계로 해결을 수용하는 측이다. 강경파는 국방부와의 태도로 북한을 힘과 국제적 압박으로 굽히려는 측이다. 이러한 태도로 공화당 보수정치세력과 군산북협체는 사회세력의 강경파와 연결될 것으로 볼 수 있다. 94년의 북·미정상과 그로 인한 IEDO로 일본과 사회당파는 대북제재라는 강경노선에 대한 대북 협상을 주도한 사회세력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핵정책은 국제적 맥파도 길러야 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는 한반도를 끌어싸고 있는 대·한국, 중국, 미국, 허아, 일본의 이해와 요구가 복잡하게 얹혀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미국은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역동성 현실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을 유지해 왔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자본주의의 세

핵권에 포함하여 시도를 좌절시킨 중국의 세력과 가능성을 크게 고려해 왔다.

미 강경노선, 남북간의 불신·대립격화 유도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대북 핵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강군과의 대립, 블린턴 행정부의 이중적, 파도기적 특성, 군부와 국제정치적 현실이라는 요인들은 집권 제 2기에 도 유하고자 할 수 있다. 먼저, 블린턴 고어와 슬리어에도 불구하고 함께 진행된 상원의 부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였고, 하원정책선거에서도 신선풍으로 인해 회의 내 강원과의 대립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우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강경파 사회세력의 독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군사부대를 포함하는 권력엘리트들 사이의 보수연합은 대북 강경노선을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한국 내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강화하여 남북간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킬 가능성을 놓을 수도 있다.

둘째,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중도주의적 수렴양상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강행한 일정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보여준다. 선거전에 들어간 후 펼쳐진 이드크 폭격은 클린턴-고어 진영의 지지율을 높여준 사실은 앞으로의 강경한 노선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정책



를 통한 한반도 안정이 클린턴 행정부가 표방해온 국제주의 자유주의와 이념의 주요한 성과로 인식되고 있어서 정치적 협력노선을 견지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북정책은 그와 연관된 국내적 맥락뿐만 아니라 국제적 맥락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은 경비체계를 이어오도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체계화를 경과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밝혀졌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갈등구조에 미친 영향력을 점검하면서 강경화를 추진해 왔지만 국제화 달성을 위하여 경제를 확장하는 한편으로 국제화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북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하여 이전보다 유화노선을 선포하고자 있다. 북미핵외교는 호전된 동북아시아 현실,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동반성과 대결의 원인에 의해 예상밖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석호
<대학원 북미지역학과 4학기>



한국인의 문화정신에 던지는 상소문

우리는 헌화를 21세기로 '문화정신'의 시대라고 명령한다. 그만큼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홍수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인의 문화정신은 그러한 전쟁의 양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의 저자 윤재근(한국대) 교수는 73년부터 이 운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문화정신을 향해 기운을 쏘아냈다.

"문화교류는 점차라고 이고 절차로는 차별화된 문화정신이다. 선진국은 호흡처럼 약속으로 문화침투를 노리고 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21세기 강대국 문화침투로 절灭될 수밖에 없다"며 그는 문화는 고인 물처럼 되어버린다. 안된다. 흐름은 물은 항상 흘러고 고인 물은 죽어. 문화도 흐름은 물과 같아 강한 문화가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가지고 미문화에 우리를 받아들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문화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상태에는 21세기 문화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그것은 곧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패배를 포함하게 된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유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문화정신이 자문화를 강문화로 구축해야 하는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교수는 주강처럼 우리문화는 강문화를 구축하고 문화적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문화가 기지는 외미를 보여야 한다. 기내식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한층 진보된 시대를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할 것인가? 시민주의의 말에서 벗어나 탄생의 집단성을 이해하고 장점은 발전시키며 우리문화의 내용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내용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체제 확립의 관점이다. 문화의 외미를 살피고 고민하는 자료로 윤재근교수의 '문화정신'을 한번 비판적으로 볼것을 권하고 싶다.

학술 단신

한국어교육과 학술제

학회간 단합과 교류에 많은 도움

서울캠퍼스 한국어교육과 학생회는 오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한국어교육과 학술제를 개최한다. 한국어교육과 발전 추진 위원회와 과내 4개의 학회가 모여 학술제를 개최한다. 한국어교육과 학술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2001년에는 대체로 학술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학술제를 준비한 한영아 교수는 '한국어 학술제는 지난해 우리과의 '동문의 밤' 이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활한 활동으로 학술제를 개최하고, 또한 학회간의 단합과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일(화): [표류하는 한국어교육과, 어디로 갈 것인가?] 2002. 5. 13일(수): [걸 썰어보는 대학문화], 2014. 5. 14일(목): [열린 학교 다시 보기], 2014. 7. 15일(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한문교육 시험 현황과 그 흐름], 2002. 5. 16일(토):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정도], 2002. 7. 17일(일): [한국어·한국학 국제학술제]

동양어대 학술제
지역학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

본교 동양어대 학생회는 11일(화), 12일(수) 대학원 210호에서 제 2회 동양어대 학술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처럼 지역학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제에는 일본어과, 베트남어과, 인도학과가 참여한다. 이번 학술제를 기획한 동양어대 학술부장 김은식(동양·중국어 3)군은 "학교는 외국학종합연

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그것이 학부생들과는 별 연계가 없고, 아울러 교수층이나 교과교정부나 교수층과는 별관이 없는 실정이다"라며 "앞으로 한경 속에서 자체적으로나마 지역학을 활성화해보자는 생각에서 이번 학술제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가 지역학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학술제의 취지를 밝혔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화): 일본어과 일본문학 연구회 [일본문화 수업개발 방을 알리는 일본문화유산의 재해석과 대회] 베트남어과 역사학회 [남서군도 영유권분쟁] 12월(화): 인도어과 전공학회 [신들의 나라인도]

전국 통계학회 학술제 개최

추계 학술논문 발표 및 정기총회 개최

지난 8일(금), 9일(토) 양일간에 걸쳐 울진캠퍼스 정보산업관과 후생관에서 전국 통계학회 학술제를 개최했다.

시대법인 한국통계학회 주최와 본교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전국통계학회 학술제에서는 주제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GLM'에 관한 초청강연과 '신증통계학자 학술논문상' 시상, 초청발표, 일반발표 및 초청인사감연 등이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각 연구회 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함께 하는 자리가 가졌다.

이번 학술제는 본교는 물론 많은 타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제에 참가한 본교 통계학과 학생은 '기상학적 정보를 활용한 정기총회 개최'에 대한 논문을 출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각에서 속빈 강정, 비파세통장

요즘 은행마다 거대한 플레이카드 등을 동원해서 선전하는 상품이 있다. 바로 다른나라 비파세가지축이 그것이다.

우선 은행측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금완면제가 주제로 특별하고, 종합파서대에서 원전 제재, 대출가능(자축금 범위내) 그리고 6개월까지 신규접수제에 한하여 혜택을 준다고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입자료는 1세대 1통장(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저축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한도 및 불입법은 최저 1만원이상 최고 100만원(부기 300만원)까지이며 월정액 또는 여유자금이 생길때마다 별입하는 자유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기계장치는 원칙적으로 1세대 1통장, 따라서 한 세대에서 두개 이상의 저축에 기입하면 먼저 기입한 것만 비파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은행측에서 1세대 1통장이라는 원칙 아래 한 기구에도 두개이상의 통장을 확인할지도 없어 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시내 10곳에 지금까지는 비파세 지축들을 만들려는 은행원의 권리에 도장이나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말한다. 그러나 은행측에서는 사용인으로도 인증을 해버렸다. 그러나 끝이 더욱 놀란 것은 은행측이 시장으로도 인증을 해버렸다. 그러나 끝이 더욱 놀란 것은 집·물과의 확인과 결과 자신의 통장을 통장을 만들었음을 확인한 후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비파세기자체도 어차피 각 은행의 이윤추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측도 금융실명제를 정확히 지키고 해야, 기입시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저축률을 끌어는 것도 좋지만 적은 돈을 편문이 모아 둔돈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안될 것이다. 열매진 기자

한국인의 무현에너지, 그 뜻에 간다 - (4)조선후기 - 김정훈



■ 김정훈-대동여지
우리나라 고도의 집현전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칭송한 저도인 대동여지도
1651년 (설경12년)에 판권을 확보해
돌파구를作出了.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빛깔을 바꿔가 함께 합니다.

자기의 뜻을 둘러싸고 이루어낸 거친입니다.
그는 시대를 앞전 선구자였습니다.

안 되는 벼이오!
내 딸한 조국도 물라선

4957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빛깔을 바꿔가 함께 합니다.



OUTDOOR STORE
Buffalo



도락선의名家
1996. 11. 11.

시 라지는 사회과학 서점과 대책

사회과학 서점 살리기, 신화는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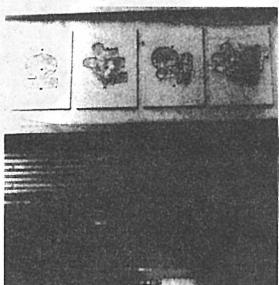
'오늘의 책' 강제 철거로 11개만 남아

본교 94학번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죽방'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을 것이다. '죽립방법'을 줄인 이 단어는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서점앞에 치러진 계시판 덕분에 많은 사람을 빙친 사회과학 서점이었다. 이런 '죽방'이라는 단어를 95학번 이하는 알 수가 없다. 이후 이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수) 연세대 앞 사회과학 서점인 '오늘의 책'이 건물주와의 일방적 통고에 의한 강제 철거로 사라지게 되었다. 94년 신촌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터에 이 지역 땅값이 올라 건물주가 500이라는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곧 '오늘의 책'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 무려 1억을 모으기도 했지만 서점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사회과학 서점의 위기는 비단 특정 서점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서점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 1월 건물주가 건물을 할아 버리겠다는 요구에 폐점 위기를 겪고 학생들의 노력에 가로막고 살아난 건물에 앞 '인서점'을 비롯해 하지철 공사로 인해 이전을 해야만 하



는 고대일 '장서서점' 또한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사회과학 서점들은 90년대초 까지만 해도 50여개에

달라진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 11개에 그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술집과 각종 유락 시설의 증가에 상대적으로 서점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이제 서적이 아닌 집값이나 가벼운 소설류 혹은 취업 관련 서적만을 선호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사회과학 서점은 다른 서점과 달리 이념 서적과 학술 관련 서적을 주로 두루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어려워 더욱 크다. 이런 현실은 사회과학 서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없이 안타깝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학 서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에 '인서점'은 학생들이 교재교환장을 사서 2천 8백만 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새로 단장하게 되었고 '오늘의 책'의 경우는 여러사람들이 서점을 살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의 책' 대체 위원장인 이도경(연세대 3)군은 '9월(수)부터 11월(목)까지' '오늘의 책' 장에 주간으로 잡고 '오늘의 책'이 시리지는 것과 신춘 문화의 현실을 짚자는 자리였다. 그리고 '오늘의 책'을 살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서점은 거의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런 필요성을 다시금 인지하는 것만이 하루아침에 서점이 노비아까지 바뀌는 현실을 극복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어야 할 시점이다.

홍연희 기자



작은 차이가 살미나는 외대를 만듭니다
<1> 학생식당

작은 차이가 살미나는 외대를 만듭니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불만들, 그 조그만 불만들을 바꿔미나는 것이야 말로 살미나는 외대를 만드는 진짜길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각 시장 또는 도정에 대한 불만과 대안을 학생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5번에 걸쳐서 다룰 예정이며 그 첫번째로 이번 호에는 '학생식당'을 다룬다.

편집자

서울

△강연대(서양·노어3)

지난해식 시간이 너무 일찍(6시) 끝났다. 원하는 6시 30분이었는데, 또 음식이 끝나면 여유시간(6시 30분까지 저녁식시간)과 상관없이 끝내 버리는 것 같다. 시간이 아니라 음식에 따라 시간이 밤과낮된다. 경제적 식당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너무 대조된다. 먹는 즐거움이 없다. 무슨 공장식당 같다. 빨리 먹고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든다.

△전승진(일반대학원 2학기)

식기반환구에 식기가 수십층으로 쌓인다. 여러 군데서 반환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다. 한쪽방향에서만 식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게 혼란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국립 뒤로 난리가 아니다. 아름들은 더워서 밥 못먹는다. 어려운 살지해달라!

△권혁민(법·법학2)

점심공사는 물론이고 식탁과 식탁사이가 너무 좁다. 내 친구가 앞사람이 지나가다가 국립은 짓자고 있다. 또 점제식당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파리가 너무 많아 밥을 못 먹겠다.

용인

△김병수(전자재아공부1)

후생관 식당이 건립되고 며칠 동안은 식사의 질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다. 그런데 카페테리아(자율식당)가 생기고 난 후 세트메뉴의 반값이 가짓수도 적어지고 맛이 없어졌다. 그리고 파리가 너무 많아 밥을 못 먹겠다.

△김진현(경·경·공학부 1)

음식이 입에 안맞아 모현 중간집에서 시켜먹기도 한다. 가끔 카페테리아에서는 특정 반찬이 헤이져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곽태훈(서학·서방이 2)

여관식당은 물론이고 식탁과 식탁사이가 너무 좁다. 내 친구가 앞사람이 지나가다가 국립은 짓자고 있다. 또 점제식당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이영관(시학·영어 4)

식기나 식판, 티저가 청결하지 못하다. 배식시간은 정확히 1시간(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이어서 시간을 놓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예전 학생회관에 식당이 있을 때는 2시간이었는데, 꼭 우리가 식당에 시간을 맞추는 것 같다.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 디섐버니(서화·독어 1)

기숙사 식당은 1,400명인데 시간을 놓았을 때는 밥을 먹을 때면 400원 순회를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 기숙사 학생들도 배려했으면 좋겠다.

생활 시평

외대 박물관

외대박물관으로 오십시오.

저희 외대박물관은 지난 1954년 설립된 이래 수없이 희귀한 골든들을 수집해왔고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박물관이 주로 건물 속에 있는 전시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비해 저희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전시물이자 전시장을 통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증축이나 신축은 용납할 수 없

는 일이며 그 어떤 이유로건 건물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봄! 그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을 뛰어나구요? 그건 내년에 있을 박물관 종합경기(박종경)를 대비해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 건물이죠. 말씀드린다면 저희 외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오래가는 하지 마세요.

여러 건물 전시품 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생회관입니다. 화생회관은 전통과 현대를 하나의 유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들은 건물이 낡아서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 건물에는 신봉기나 난방기와 같은 이전의 인위적인 설치와 사용을 막아내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생들이 출입이나 더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생들의 고생쯤은 저희 박물관의 유구한 전통을 지키려기 위한 '사소한' 힘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건물을 지나면서 화생회관을 지나고 있는 건물이죠. 저들은 건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아주 적합한 구조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개별경찰? 저희는 전혀 걱정 않습니다. 저희희사 사고방식까지 옛날 것으로 무장하고 있는 박물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테니까요.

김태형 기자

'지금은 텔레비전 방송중'

완전한 방송위해 실질적 투자 필요



이제 외대교육방송국(PBS)의 방송을 '소리'가 아닌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언제부턴가 서울케이블과는 비슷한 학생식당에서 접실·저녁식당에서 볼 수 있고, 용인케이블은 현재 CATV체널정보문제가 조각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곧 학생들과의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런데 FBS는 왜 텔레비전방송을 도입하고자 하였나? 이유에 대해 서울 FBS 국장 박유진(서민·한교 3)군은 "이제까지의 오디오방송은 많은 현제를 지나고 있다. 우선 한 번 듣고 그냥 지나버리기 때문에 어떤 허름한 결과가 없어지는 것과 이단기로써 허름한 결과가 없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이나 살피면 경우 후생관식당, 이론관, 각 단과로비, 심지어 학회방까지 모니터만 있으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텔레비전방송은 이 정도되거나 저지른 경우에 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기자회관 부속과 학교측의 무심이. 현재 FBS는 카페라 2대, 비디오 편성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은 새롭게 구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소위 '영상세대'라 불리는 현재의 학생들은 대상으로 전달력이 높고 매체효과 속도가 빠른 텔레비전방송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본교 학생들은 어떤 허름한 결과를 원하는가. 먼저 서울 FBS는 89년 방송제작 실무자작품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시작된 텔레비전방송에 대한 관심은 92년 텔레비전방송진실위원회에서 개최된 경쟁에서도 높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본교보다 먼저 텔레비전방송의 필요성은 부분 업무용을 사용하는데 비해 본교는

원들의 장학금과 운동비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일단 방송을 시작하고 있다. 용인 FBS 역시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방송을 준비해왔고 지난 94년도 학생관식당에서 방송을 시작했다가 내부사업으로 중단됐다. 현대 학교과학과 카탈리비전체널화보관·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 전망이 밝다고 한다. 학부이나 석사원 경우 후생관식당, 이론관, 각 단과로비, 심지어 학회방까지 모니터만 있으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텔레비전방송은 이 정도되거나 저지른 경우에 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기자회관 부속과 학교측의 무심이. 현재 FBS는 카페라 2대, 비디오 편성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은 새롭게 구비하기를 원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화상당을 확장해 시장에 따른 방송국 인력충원이 떫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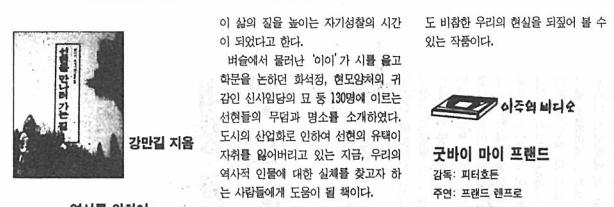
이는 대학도 많다. 경희대의 경우는 92년도에 텔레비전방송을 개국하고 하루 2회 95분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성방송과, 정규방송시간과 문자방송을 함께 한다. 더구나 앞으로 화상당이 개장해 시장에 따른 방송국 인력충원이 떫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본교보다 먼저 텔레비전방송의 필요성은 부분 업무용을 사용하는데 비해 본교는

있는 대학도 많다. 경희대의 경우는 92년도에 텔레비전방송을 개국하고 하루 2회 95분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성방송과, 정규방송시간과 문자방송을 함께 한다. 더구나 앞으로 화상당이 개장해 시장에 따른 방송국 인력충원이 떫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설립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및 일상기재 도입을 위해 약 2억 5천만원의 학교지원금을 받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2(금) 본교가 국립대학원 신설됐다. 국립 대학에 신설된 대학이라고 말하면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속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다. 김태형 기자

한길사/8,000



역사를 위하여

벌거벗은 로마사

감독: 데이비 미랫·제프리 그린리 | 글: 제프리 그린리 | 캐스팅: 마크루즈, 만데스(미국/1987)
시간: 12회(2회) | 1회: 14:00
2회: 17:00
장소: 서울 대강당(인문과학관)
제공: 영화모임 '월드'

지령한 정신과 외연에 어울리는 일군의 사기꾼들을 만나고 사기 게임에 일관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슬스로 뛰어넘는 '원칙적' 사기꾼 기질을 발견했다는 것.

감독소개: 데이비 미렛·제프리 그린리 | 글: 제프리 그린리 | 캐스팅: 마크루즈, 만데스(미국/1987)
시간: 12회(2회) | 1회: 14:00
2회: 17:00
장소: 서울 대강당(인문과학관)
제공: 영화모임 '월드'

그는 미국 사회학 거대한 '계임의 집'으로 보고 있으며 속고 속이는 관습에 빠져 '미국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비즈니스에 기본 요건이라고 말한다.

한길사/8,000
서양 현대 철학을 소개하는 입장으로서 1부에서는 '현상과 해석학' 2부에서는 '비구조론' 3부에서는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의 4부에서는 '분석철학'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소개하였다. 서양 현대 철학의 흐름을 개관하는 동시에 서양의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쉽게 수용하고 있는 현제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중심을 잡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군데라는 가장 낭성적인 주제를 여성 김길사 표현으로써 조胖子는 현실성이 할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 버린 작품이다.

군데라는 여성 김길사 표현으로써 조胖子는 현실성이 할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 버린 작품이다. 군데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 새친구를 통해서 적집적이지 않으면서

이후에 현실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은 그것이 발행된 이후 불변의 진리다. 세상에 피해를 입히는 병도 마찬가지다. 페스' '페임' '임'으로 이야기되는 이 특이한 계보는 오늘날에 이르러 '에이즈'라는 20세기 최후의 불치병으로 이야기된다. 이런 죽음을 도구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들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영화이다. 조胖子하고 톱진 없는 음악, 굴곡없이 점진되는 줄거리가 끝까지 영화를 가진 진실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최근의 자극적인 영화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제공: 생활협동조합·총무팀 추생과)
구분
월(11월)
화(12월)
수(13월)
목(14월)
금(15일)

조식	중식 I	중식 II
미파부밀밥 (W1,300)	한우육개장 (W1,800)	일본식돈까스 (W2,000)
험식이찌개 (W1,300)	우거지김치탕 (W1,800)	난자완스 (W2,000)
중국식볶음밥 (W1,300)	닭강정 (W1,800)	새우커플렛 (W2,000)
페지고기 김치찌개 (W1,300)	떡 갈비찜 (W1,800)	비프트로기노노프 (W2,000)
김밥 (W1,300)	불고기백반 (W1,800)	연어구이 (W2,000)

강제 철거! 오늘도 계속된다

정부의 재개발 정책… 철저한 자본의 논리

"지난 달 17일에 800명의 철거민들이 들어와 다 부숴버리고 나서 비닐랩트 2개 주변에 살피고 나서 비닐랩트 2개까지 거둬버리고 전기,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남은 주민 15명이 방 한동에 살고 있지요."

며칠 전 강제철거가 시도된 반포 2동 철거민 노남주(56세)의 말이다. 이것은 소수민의 일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내 시민의 15명이 봉황, 신림, 삼양, 마포 등es의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재개발지구에서 살고 있다. 지난달 23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부산 해운대 승강장을 비롯한 전국의 재개발지구는 철거용기와 포크레인으로 둘째기 되는 강제철거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수많은 도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강제철거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불법지적 재개발사업은 수많은 분쟁과 충돌을 끼어온다. 이런 분분한 빛에 된 것은 정부가 재개발사업장에서 평당지액을 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들과 개발에 끌어들였기 때문이

다. 한 지역을 재개발하면 수천, 수조원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살피기로는 국토재화하는 건설자본의 이윤보조를 위해서는 강제철거로 불사한다는 실인적인 논리는 생기게 될 것이다. 강제철거의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철거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았기로 다시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런 상황은 한 경권이 들어오고 나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 가까운 철거지역인 전농 3동의 철거민 지원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고 위원 조현진(서양·독일어 2)군은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주거 23만호를 약속했지만 현재 1만호도 건설되지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것 미처도 중증층을 위한 아파트건설이 대부분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대책으로서 시장경제논의에 맞아 별 토지이자도 도시민들에게 더욱 어렵해진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민방민중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서 막상 응력업체를 통해 강제철거를 시행하면서 3·4동원정도의 보상금을 제

김정희 기자

'96 전국 노동자 대회 열려'

전야제는 잠실 체육관 본 대회는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및 계약자지"라는 기치 아래 민주노총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96 전국 노동자 대회 및 전야제'를 지난 9일(토)과 10일(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첫째날 종합운동장과 잠실체육관

에서 7시 반에 시작된 노동자 대회 전야제는, 모두 20여개의 노동자와 학생이 참여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하철 구내에서부터

도로에까지 벽력을 배치해 전야제 참가자들에게 대한 검문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솔직대 학생 50여명이 버스에서 내리자 미자 친권들이 포위, 일

부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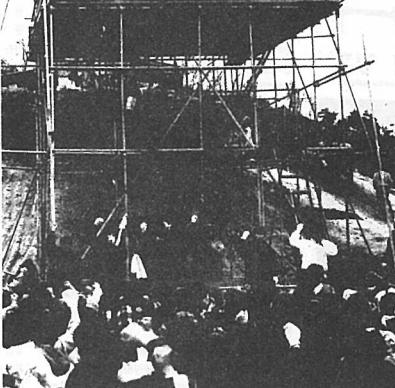
또한 학생과 경찰간의 두사람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학생 한명이 경찰차에 치여 사고가 일어났으며 학생 5명 정도가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유로 학생들은 행사가 끝날 때 까지 계속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민주노총에 계속

적으로 안전조치 요구를 하자 민주노총

측은 안전귀가 보장과 연행된 학생은 민



철거민들이 철거장과 공공권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건설한 골라잇.

그들은 단 한시도 물러나지 않고 규탄을 선다.

사회단신

시위학생 출석점검 소홀 교수3명 소환

지난 4일 경찰이 시위구속 관련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었다는 이유로 전남 대 교수 3인을 불러 조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교수 3인은 지난 9월초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지난해 '2학기'와 '1학기' 때 시위 관련 구속과 법령 수입일수를 제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D 학점 이상을 준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 강계위에 회부 됐다.

이들 3인의 행위는 거짓 공문서 작성이며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강간 압수증을 발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환된 교수들은 관련 학생 구속을 알지 못했고 수강생이 200명을 넘어 날마다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학생이 대신 대답을 하는 사례도 많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학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단순 수술로 학직을 파지 못해 일어난 일상에도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은 한글련 시태이후 학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수 있다"며 소환교수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요구했다.

사회과학 서점 경찰 압수 수색 진행

부산대에 인하대 부근에 있는 사회과학 서점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6일(수) 11시경에 부산대 앞에 있는 사회과학 서점인 '나리사당'에 보인수 대 소속 힐시와 전투장을 30여명이 몰아닥쳐 '나리사는 한국현대사'와 '경계기를 뺏고서' 등 5종 99권의 책을 압수해겠다고 서점 경계자는 밝혔다.

다음날 7일(목) 새벽에는 인하대 앞 사회과학 서점인 '세남'에 경찰이 참입해 사회과학서점 등을 압수해갔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과 서적들을 압수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부산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언데동일 무정이후 김영삼 정권의 계속되는 공안단압으로 학생운동과 민주운동 세력 셰릴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며 "우리의 단결된 투쟁으로 사회 과학 서점들을 지켜낼 것이다"고 말했다.

총신대 연대항쟁 참가자 무기정학 조치

총신대가 연대항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무기징역 처리해 말을 빚고 있다.

학생들은 따르면 총신대가 이번 연대항쟁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반성 문을 요구하고 이를 불하는 학생들에게는 무기징역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전야제가 열리는 잠실 노동법 개정 및 계약자지'라는 기치 아래 민주노총 1주년을 기념하는 '96 전국 노동자 대회 및 전야제'를 지난 9일(토)과 10일(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첫째날 종합운동장과 잠실체육관에서 7시 반에 시작된 노동자 대회 전야제는, 모두 20여개의 노동자와 학생이 참여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하철 구내에서부터 도로에까지 벽력을 배치해 전야제 참가자들에게 대한 검문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솔직대 학생 50여명이 버스에서 내리자 미자 친권들이 포위, 일부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또한 학생과 경찰간의 두사람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학생 한명이 경찰차에 치여 사고가 일어났으며 학생 5명 정도가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유로 학생들은 행사가 끝날 때 까지 계속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민주노총에 계속적으로 안전조치 요구를 하자 민주노총 측은 안전귀가 보장과 연행된 학생은 민

주노총이 책임지고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야제가 열리는 잠실 노동법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총궐기장을 빼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양하게 마련된 문화 프로그램과 페스티벌, 신고 전달식 등의 순서를 마친후 민주노총은 전야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과 같은 대처를 밝혔다.

-복수노조하임,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등 자주적 단결권의 힘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특별법등 노동 조건의 악화를 겪어오는 노동법 개정을 저지한다.

-정부와 계제의 임금등과 경리해고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한다.

-노동법 개정이 연기될 시 민주노총은 풍파까지 불사하는 흥행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법국민적 연대투쟁으로 노동법 개정을 막을 투쟁한다.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전야제는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야제 문화경연대회 실사경과 발표·시상으로 전야제를 마쳤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전야제는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전야제는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 이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참여해 전야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축출해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

각과 동문 초청 모임 활발

준비 미흡으로 형식적 행사로 그쳐

독일어 교육과

독일어교류원 동문들의 밤이 지난 10일(일) 오후 6시 대학원 311호실에서 열렸다. 새내기들의 원이 연극과 복학생들로 구성된 '제수없는 아이들의 노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동문들의 밤은 전날 열린 체육대회와 함께 학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높은 학생들의 산배들이 경우는 연락이 거의 안 되고 자금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학과

경영학과 동문들의 밤이 지난 9일(토) 늦은 4시 소강당에서 열렸다. 학과장과 과회장 그리고 동문회 정기 개최회 순으로 시작장을 통하여 상경과 노래 평택의 축성공연이 있은 후 멀티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동문회에서는 경영학과 동문회가 결성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을 녹제로 많은 트로피의 시간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동문회는 충전한 경영학과 오승훈(3)군은 '3년만에 부활하는 경영학과 동문회로 농단한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선·후辈 경우의 장으로 매년 열리는 올해 신생인의 '발행인'이 지난 8일(금) 오후 7시 30분 교수식당에서 개최됐다. 100여명의 신생인과 사회과학계열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는△승용과 공연△신생과 토크파티△현대△반법경기팀의 순서로 진행됐다.

폴란드어과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동문회 견실 및 졸업생과

재학생과의 만남의 자리 폴란드어과 모교방문의 날이 지난 10일(일) 오후 2시 아문관 식당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조별로 게임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세 계민족예술문화축제에서 선보인 춤을 공연했다. 또한 현 학생회 활동사업을 보고하고 동문회 건전위 발족에 대한 제안을 봤다.

사회학과

사학과 모교방문의 날이 오는 17일(일) 소운동장과 후생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출연: 폴리기·짜페구·축구 등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이어서 1학년을 중심으로 한 노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다른 후생관 앞에는 박정희 교수와 이번 출범 투쟁과 관련돼 구속된 최진선(4)군에 대한 신전 꽂풀도 전시된다.

무역학과

오는 16일(토) 오후 6시 논현동 YMCA 4층에서 무역인의 밤이 열린다.

이번은 학과경의 축하인사로 시작될 1부 행사에서는 과회장의 초대의 말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1년 교수보고와 함께 내빈소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이 날 행사를 준비하는 학우들이 이 날 행사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문현기(3)군은 "많이 와서 봄보던 얼굴들을 봤으면 한다"며 "부부제로 인해 공통으로 경과를 위하는 있는 상태에서 이번 행

사가 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왕산 총학후보 1 차 유세 (6시 학생 회관 앞)	•서울총학 후보등 록 마감일	•왕산총학후보 정 건트론회 (SA) 후생 관 교직원 식당	•사법대 학생회장 등록마감일	
서양아대 학생회장 선거운동 마감일	법대후보 마감일	서양아대 학생회장 선거 일본어와 회장선거 정외와 회장선거	아랍어와 회장선거	

대학보도

대학단신

전국 대학생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원서접수 전국 대학생 외국어학력경시대회가 오는 20(수)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제4회 개방화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위치로 실시된다. 교육부에서 후원하고 대회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는 오는 30(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입상자는 해외 연수의 특전과 왕복 국제 항공권이 수여된다. 신청 접수는 본교 사법대 교학과로 하고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 861-7047, 961-4083번으로 하면 된다.

외대 바둑 명인전 열려

제 15회 외대 명인전이 지난 10일(일) 대학원 311호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열렸다.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교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명인전은 김조(급)·경·천원, 윤조(급)이하)의 경우는 3선원과 후생관 앞에 박정희 교수와 이번 출범 투쟁과 관련돼 구속된 최진선(4)군에 대한 신전 꽂풀도 전시된다.

여 기숙사 매점 개장

생활편집조합은 지난 10월(월)부터 여기숙사 기숙사 매점을 개장했다. 또한 남학생 기숙사 매점 자리에는 아식판매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여학생 매점 이용시간은 남자 12시, 여자 11시까지이다.

생활 사업부 대리 정진성씨는 "이번 계획은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남학생 기숙사 아식판매대의 경우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김조의 경우 우승은 삼금 15만원 준우승은 8만원이고 윤조의 경우는 우승은 7만원, 준우승은 3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4회 전태일 암사 추모제 열어

전태일 암사 분신 26주년을 맞이하여 기독학생회·한국시민연합·계례사람·사월문화인·사람사랑이 연합하여 제 4회 전태일암사 추모제를 오는 12(월)(토) 오후 5시 30분 후생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각 동아리와 회화는 전태일암사 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노래와 애무기가 추모기부를 부르고 기독학생회에서는 기도문을 낭독한다. 또한 노래문동에 대한 비단오도 상암을 예정이다.

어학연수설명회 15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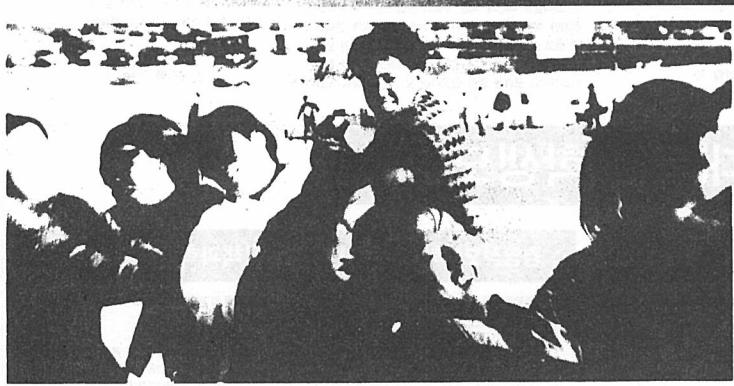
학생복지위원회 주최 어학연수설명회가 오는 15일(금) 대학원 210호에서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설명회는 호주 동부도시인 Brisbane의 Achener College 국제학생담판관을 직접 초빙하여 본교와 한양대(16일) 두곳에서 열린다.

특히 유학원에서 알선하는 연수와 달리 이번 어학연수는 수속과가 없고 전월 알선하여 현지에서 국제공인 토익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학생복지 위원회 김현동(서양·영어 4)군은 "개인적으로 연수를 찾을 때 생기는 불편성이 적고 공식적 있는 기관 주관인만 믿을 수 있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학우의 힐더지기"가 지난 10월 29일(화)부터 11월 8일(금)까지 축구·농구·필야구·축구·줄다리기등의 다양한 종목으로 '96왕산체전이 개최됐다. 월의 주문 날씨와 우천으로 경기가 연기되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뜨거운 열의와 호응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편집자 주

왕산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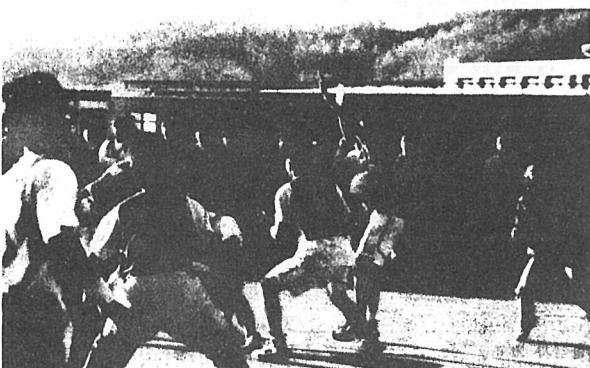
인문대 단대점의 홍경에 맞추어 사학반 학생들이 미생물학과에 맞서 6일(수) 대운동장에서 열린 줄다리기에 힘을 다하고 있다. 서로의 우의를 다진 이번 경기의 승리는 2승1패로 미생물학과가 들어갔다.



우리들의 염원
을 담아서



체육선수들이 열린 8
일(금) 학생들이 대운
동장에 모여 대회 기간
동안 주제로 운동으로
경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발 들어가자래

학생회관 앞 농구장에
서 열린 6회(수)의 볼
이과 대 힘기어와 경
기이다. 우월을 따질
수 있는 기량과 드거운
열기에서 다른 과의 학생
들도 손에 맷을 쥐고
권위하고 있다.